

육계자조금 시행되기까지 ‘어제와 오늘’

편집부

육계 의무자조금 사업은 무임 승차자를 최대한 배제하고 국내 육계산업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육계의무자조금 사업은 농협, 양계협회, 계육협회 등 3개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해 왔으며, 출발 전 여러 가지 난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육계산업 발전이라는 대명제아래 지난 2004년 11월 15일 제1차 육계자조활동자금 공동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준비위원장으로 한형석 계육협회장을 선출, 육계의무자조금 시행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2004년 12월, 국내 육계산업의 존폐 위기까지 가져오게 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일시 중단돼, 지난해 8월 25일에서야 제2차 공동준비위원회를 개최, 대의원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한형석 공동준비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선거구별 대의원수를 150명으로 확정하는 등 자조금 시행을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대의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대의원 선거 준비에 돌입, 2005년 10월 24일에서 10월 28일까지 5일간 전국 각 시·군에서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68개 선거구에서 총 135명의 대의원

을 확정했다(4천1백65농가 중 2천5백51농가가 투표에 참여, 전체 농가수 투표율 61.3% 기록).

선거준비 기간이 짧아 다소 준비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육계자조금사업에 거는 기대와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육계자조금 설치를 위한 대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2005년 12월 23일 육계자조금 대의원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나 호남지역의 폭설 등의 영향으로 대의원 정수의 2/3를 채우지 못해 아쉽게 유회됐다. 이날 대의원 총회 유효 정족수는 100명이었으나 유효 선언 시까지 참석한 대의원 수는 95명이었다.

그리고 2006년 4월 20일,

‘육계의무자조금 사업 시행’이라는 큰 목표 아래 2004년 11월 15일 제1차 육계자조활동자금 공동준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육계의무자조금 시행’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날 농협중앙회 안성 연수원에서 열린 ‘육계자조금 설치를 위한 대의원회’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77%의 찬성률로 ‘의무자조금 거출’을 확정했다.

이날 대회에는 대의원 총수 150명의 2/3를 충족시키는 110명이 출석,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100명)를 충족했다.

이날 열린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결사항

제1호 안건 :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이날 대의원들은 거수를 통해 충남 당진의 이홍재 대의원(66표)을 초대의장으로, 충남 부여의 송태희 대의원(44표)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홍재 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후 이홍재 의장은 육계자조금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의사록 서명인으로 경기 지역 남상길 대의원, 충북지역 이준동 대의원, 전북지역 소삼 대의원, 경남지역 이상정 대의원을 지명했다.

제2호 안건 : 자조금 거출여부 결정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거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그 결과 찬성 85표, 반대 24표, 무효 1표로 77%의 찬성률로 육계의무자조금 거출을 결정했다.

제3호 안건 : 자조금 거출금액 결정(단위 : 원/수수)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 거출금의 한도는 농림부 장관이 발표하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해야 함에 따라 자조금 거출금액을 2005년도 농협발표 평균 거래가격(1.5kg 기준, 수당 2,160원)을 토대로 1안은 5원(거출비율 : 2.5/1000), 2안은 10원(거출비율 : 5/1000) 등 2개 안을 상정,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자조금 거출금액은 1안(5원) 63표, 2안(10원) 15표, 무효 5표, 기권 2표로 1안이 채택됐다.

한편 품종별 거출 비율에 대해서는 1안 육계·삼계·재래닭·종계 모두 100%, 2안 육계·재래닭 100%, 삼계 50%, 종계 200%, 3안 육계 100%, 삼계 50%, 재래닭 150%, 종계 300%, 4안 육계 100%, 삼계 50%, 재래닭 150%, 종계 500%, 5안 육계 100%, 삼계 50%, 재래닭 150%, 종계 1,000% 등 5개 안을 상정,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품종별 거출비율은 5안인 육계 100%, 삼계 50%, 재래닭 150%, 종계 1,000%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육계 5원, 삼계 2.5원, 재래닭 7.5원, 종계 50원씩 각각 거출하게 된다.

2. 부결사항


제4호 안건 : 관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위촉

Feature articles | **맞올린 육계자조금, 향로를 찾아라!**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 운영규정 제5조, 제15조에 의거, 축산관련단체(농협, 양계협회, 계육협회)에서 관리위원(8명) 및 감사(2명)를 추천했다.

그러나 대의원회의에서는 이를 부결하고 임의로 관리위원 13명, 감사 2명을 선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대의원회) 제4항에 의거, 축산단체가 제정한 ‘육

계자조금 대의원 운영규정’ 제14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2항에 맞지 않아 합법성 여부로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대의원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돼 7시가 넘도록 진행됐으나 결국 대의원회 운영규정에서 벗어난 관리위원회 선정으로 2006년 5월 개최예정이던 관리위원회 구성에 차질을 빚게 됐다. 

5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대의원총회 현장리포트



1



2



3



3-1



3-2

- 1 대의원 총회 유효 정족수는 100명으로, 한 병권 대의원이 100번째로 등록을 하고 있다.
- 2 국민의례로 대의원회의가 시작됐다.
- 3 한형석 준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육계자조금 시행을 꼭 이뤄내자고 밝혔다.
- 3-1, 3-2 이날 대의원 총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양계협회 최준구 회장과 농협 남성우 상무가 참석했다.



4



5



6



7



8



9



10



11



12



13



14

4 임시의장을 맡은 한형석 공동준비위원장이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사항을 대의원들에게 설명했다.

5 대의원들은 거수를 통해 이홍재 대의원을 의장으로, 송태희 대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6 이홍재 의장이 이날 의결할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7 이날 참석한 110명의 대의원들이 의결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

8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한 대의원이 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9 제2호 안건인 자조금 거출여부 결정 및 자조금 거출금액 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기 위해 대의원들이 줄을 서고 있다.

10 의사록 서명인으로 지목된 남상길 대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대의원이 투표인명부에 서명하고 있다.

11 기표를 마친 대의원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12 남상길, 이준동, 이상정 대의원이 개표를 하고있다.

13 개표 결과, 참석한 대의원 중 85명의 찬성으로 육계업무자조금 거출이 확정됐으며, 자조금 거출금액은 품종별 거출비율에 따라 육계 5원, 삼계 2.5원, 재래닭 7.5원, 종계 50원씩 각각 거출하게 된다.

14 대의원회의가 시작될 때는 좌석을 꽉 채웠지만 회의가 끝나갈 무렵 빈 좌석을 많이 볼 수 있다.